

# #해시태그

주식전략. 한대훈 / 3773-8515, handaehoon@sk.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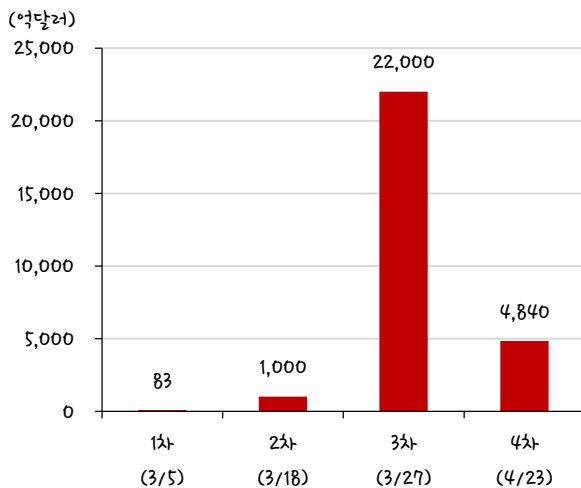


2020-07-22

해(解,답)가 없는  
시장을  
태연하게  
그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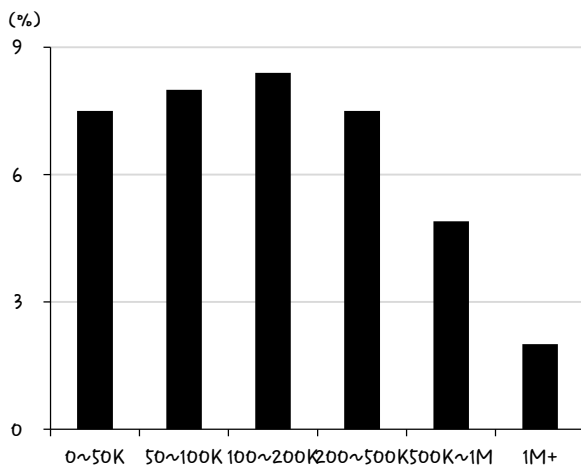
## 다섯번째 경기부양책을 예고한 미국

코로나 19에 따른 지난 경기부양책 규모



자료: 미국 재무부, SK 증권

소득구간별, 소득대비 급여세 지불 비율



자료: Tax Policy Center, SK 증권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이달 말까지 추가 부양책을 합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 코로나 19의 재확산세가 나타나면서 다섯번째 경기부양책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주당 600 달러의 추가 실업 보험 지원 등 일부 부양 프로그램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 점도 신속한 추가부양책의 실시를 압박하고 있다. 그 동안 미국 의회는 네 차례에 걸쳐 코로나 19로 침체된 경기 부양을 위해 총 2 조 8,000 억달러 규모의 4 개 예산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번 다섯번째 법안에 대해서, 미국 정부와 공화당은 1 조달러 규모 이상의 부양책을 구상 중이고, 민주당은 3 조달러 이상의 대규모 부양책을 주장하고 있어 견해차이가 크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미국 하원은 경기부양을 위해 3 조달러에 이르는 추가예산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아 마찰이 예상된다.

우선순위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추가 실업수당 연장과 주(州)정부 지원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근로자의 일터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세금 공제 방안 도입으로 맞서고 있다. 급여세 감면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가 크다.

므누신 장관의 바람대로 이달 중에 5 차 경기부양책의 합의여부는 미지수다. 600 달러 규모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오는 7/25 에 종료되는 만큼, 7/25 를 전후로 경계감은 높아질 수 있다. 추가 실업수당 지급기간이 촉박해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규모와 우선순위에 이견이 있지만, 초당적으로 협력해야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경제활동 재개와 자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인 뒷받침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